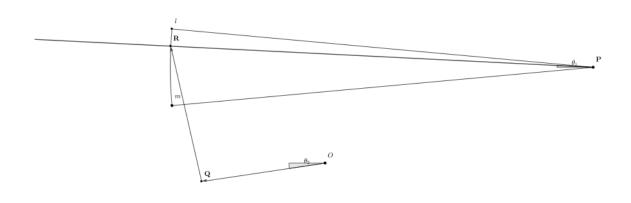
직접 힌지를 만들어 실험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이 되었다. 힌지, 레일플레이트, 암 부분만을 간단한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어 컴퓨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,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적의 암길이 및 레일플레이트 길이를 구해보자.



## 1. 모델 정의

위 그림과 같이 레일플레이트와 힌지만을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자. 레일플레이트가 힌지와 고정된 지점을 P, 서보모터의 회전축의 위치를 O, 즉 원점, 어퍼암과 레일플레이트의 연결점을 P, 로워암과 어퍼암의 연결점을 P, 로워암을 선분  $\overline{OQ}$ , 어퍼암을 선분  $\overline{QR}$ 라고 하자. 또한 선분  $\overline{OQ}$ 의 길이를 P, 선분  $\overline{QR}$ 의 길이를 P, 선분  $\overline{PR}$ 의 길이를 P 라고 하자. 또한, P 를 각 P 축의 단위 기저벡터라고 하자. 일반적으로 한 점에 대해 볼드체로 표현된 경우는 위치벡터로,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적으로 좌표평면 상의 한 점으로 취급한다.

레일플레이트의 최대 회전한도  $\theta_{limit}$ 가 주어졌을때, 레일플레이트는  $-\theta_{limit}$ ,  $\theta_{limit}$ 범위 내에서 회전 가능하다. 그렇다면 점 R은 반지름이  $\alpha$  이고,  $-\theta_{limit}$ ,  $\theta_{limit}$ 사이에서 정의된 호 위의 한점이다.

정리 1. 점 P에서부터 반지름을  $\alpha$ ,  $[-\theta_{limit}, \theta_{limit}]$ 사이에 정의된 호  $\widehat{lm}$  위의 임의의 점 R를 잡자.  $R = P + (\alpha \cos \theta_1, \alpha \sin \theta_1)$ 를 성립하는 벡터 R이 주어졌을때 R - P 와 -u 사이의 각을  $\theta_1$ ,  $(-\theta_{limit} \le \theta_1 \le \theta_{limit})$ , 벡터 Q와 u 사이의 각을  $\theta_2$ ,  $(0 \le \theta_2 \le 2\pi)$  라고 하자. 그러면 코사인 정리에 의해 삼각형 ORQ가 성립하는 모든 점 R에 대해, 점 R을 삼각형 ORQ의 세 변의 길이인 x, y, |R| 과 삼각형의 한 각  $\angle \overline{ROQ}$  로 표현할수 있다.

정리 2.  $\triangle$  ORQ 가 성립하는 임의의 점 R가 주어지면,  $\triangle$  ORQ이 해결되므로  $\angle \overline{QOR}$  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정리를 통해 구할수 있다. 그러면  $\theta_R$ 가 R과 u사이의 각일때,  $\theta_2$ 의 크기는  $\theta_R$   $\pm$   $\angle$ QOR 가되고, 이로 인해 형성된 점 Q는  $\overline{OR}$ 에 대해 대칭이다.

 $\theta_1$  이 주어졌을 때, 점 R에 대한 위치벡터  $R = P + (\alpha \cos(\pi - \theta_1), \alpha \sin(\pi - \theta_1))$  로 표현된다. 그러면 정리 1 에 의해:

$$\angle QOR = \arccos \frac{|R|^2 + x^2 - y^2}{2x|R|}$$

마찬가지로:

$$\angle OQR = \arccos \frac{x^2 + y^2 - |R|^2}{2xy}$$

$$\theta_R = \arccos \frac{R \cdot u}{|R|}$$

하지만  $\theta_R$ 의 경우  $0 \le \theta_R \le \pi$  에서 정의되었으므로 **R**의 y 축방향에 따라  $0 \le \theta_R \le 2\pi$  로 바꿔줘야 한다:

$$\theta_R = \begin{cases} 2\pi - \theta_R & \text{if } \frac{\mathbf{R} \cdot \mathbf{v}}{|\mathbf{R}|} < 0 \\ \theta_R & \text{otherwise} \end{cases}$$

 $\theta_2$ 의 경우, 정리 2 에 의해 두개의 Q가 생성된다. 그중  $\overline{OR}$ 의 왼쪽에 항상 있는 Q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자. 이 조건은 서보모터가 레일플레이트의 각도  $\theta_1$ 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시계방향으로, 감소시키기 위해선 시계 반대방향으로만 회전하게끔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. 위와 같은 조건을 수학적으로 변형하여 Q를 선택하기 위해선, 정리 2 를 활용하여 다음 조건을 구성할수 있다:

벡터 R을  $\frac{\pi}{2}$ 만큼 회전하여 R과 수직인 새로운 벡터 R'을 만들었을때,  $\overline{OR}$ 의 왼쪽에 있는 벡터  $Q \vdash R' \cdot Q > 0$  가 되어야 한다. 즉 임의의 벡터를  $\frac{\pi}{2}$ 만큼 회전시키는 회전행렬 T가 있을 때:

$$\mathbf{Q} \vdash \mathbf{R}' \cdot Q > 0 \text{ 가 되어야 한다. 즉 임의의 벡터를 } \frac{\pi}{2} \text{만큼 회전시키는 회전행렬 } T \text{가 있을 때:}$$
 
$$\theta_2 = \begin{cases} \theta_R - \angle \text{QOR} & \text{if } \left( x \cos(\theta_R - \angle QOR), x \sin(\theta_R - \angle QOR) \right) \cdot TR > 0 \\ \theta_R + \angle QOR & \text{if } \left( x \cos(\theta_R + \angle QOR), x \sin(\theta_R + \angle QOR) \right) \cdot TR > 0 \end{cases}$$

만약 두 조건을 전부 만족하지 않는 경우,  $m{Q}$ 의 제약을 만족하는  $m{ heta}_2$ 가 주어진  $m{x}, m{y}, m{lpha}, m{P}$ 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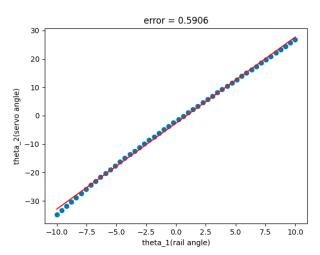
마지막으로 점 Q를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:  $Q = (x \cos\theta_2, x \sin\theta_2)$ 

해석의 편리함을 위해 -v와 같은 방향일 경우를 0 으로 두기 위해  $\theta_2 = \pi - \theta_2$ 로 변환한다. 이경우 로워암의 최대 회전한도를 지정하는데 더욱 수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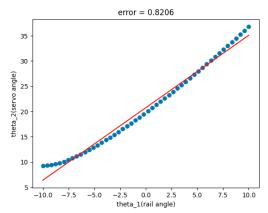
이제 최적 암의 길이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자. 먼저 Q의 방향을 제한함으로써 서보모터는 증가, 감소를 각각 한 방향으로만 할수 있게된다. 원활한 구동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각로워암과 어퍼함의 회전범위, 각  $\theta_2$ ,  $\angle OQR$  에 대해 제한을 둬야한다.

두번째로 레일플레이트의 미세한 조정과 안정성을 위해서는,  $\theta_2$  의 변화량이  $\theta_1$ 의 변화량에 최대한 민감하지 않게끔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. 이는 위에서 설정한 각도 범위제한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, 특히 레일플레이트의 회전량이 클 때 암을 지나치게 기울게 만드는 암들의 길이를 필터링할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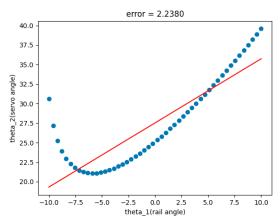
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레일플레이트 각도에 대한 서보모터의 각도함수  $\theta_2 = g(\theta_1)$ 를 구한 이후,  $(\theta_1,\theta_2)$ 쌍들에 대해 선형회귀를 시행하여 평균 절대 오차를 기준으로 암을 정렬하였다. 놀랍게도 선형회귀 오차는 암의 안정성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점수 역할을 하였다.



위 그림은 평균 절대 오차가 0.59 인 암, 레일조합의 각도함수를 그린 결과이다. 그림에서 보이듯이 각도함수가 빨간색 선형함수에 큰 오차없이 들어맞는걸 확인할 수가 있다. 실제로 해당 암의 시뮬레이션 결과(good\_arm.mp4)를 보면, 어퍼암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로워암이 안정적으로 레일플레이트를 기울이게 된다.



반면 오차가 0.82 로 조금 큰 서보모터 각도함수의 경우, 선형회귀로 근사한 일차함수랑 상당한 오차가 존재하는걸 확인할수 있고, 특히 레일의 각도가 클수록 오차가 두드러진다.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결과(bad\_arm.mp4)를 관찰해보면, 시작점부터 암의 배열이 불안정하고, 레일플레이트를 기울이기 위해 어퍼암, 로워암 모두 많이 회전해야 하는걸 볼수 있다.



마지막으로 오차가 2.23 으로 나온 각도함수이며, 비선형성을 넘어 단조 증가하지 않는걸 관찰할수 있다. 실제로 시뮬레이션(failed\_arm.mp4)을 보면, 어퍼암이 스스로 오르락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회전을 보여준다. 이는 각도함수의 단조 증가/감소는 주어진 레일플레이트의 각도를 물리적으로 가능케 만드는 서버모터 각도의 존재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.

이처럼 선형회귀를 통한 오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, 의도했던 레일플레이트, 서보모터 간의 선형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암을 찾을 수 있게 해주며, 이는 대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암의 형태가 된다. 또한, 선형회귀의 오차인 만큼, 실제로 아두이노로 구현 시 선형함수로 두 각도간의 관계를 근사했을 경우 가장 적은 오차를 가진 암이 되므로, 이론적으로 가장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암이 된다.

## 2. 격자검색을 통한 최적 암, 레일플레이트 고정길이 탐색

이제 위의 기준들을 통해, 모형을 여러 암 길이 조합에 적용하여 최적 암을 선택해야 한다. 각 $x,y,\alpha$ 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고른 간격으로 선정한 후, 각 길이를 조합하여 최종길이를 선택했다. 실험을 위해선 서보모터 축을 (0,0)으로 둔 후, 레일플레이트 힌지의 위치 P와 각 어퍼암, 로워암, 레일플레이트의 최소, 최대길이를 지정해 주었다. 이후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로워암, 어퍼암, 레일플레이트 길이의 조합에 대해 위의 모형을 적용하여 서보모터 각도의 범위와 선형회귀 오차를 구하였다. 이후 회전범위 제한을 통해 1 차 필터링을 한 후, 가장 작은 회귀오차를 가진 조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상작동을 확인하였고, 최종적으로 두개의 하드보드 모형을 만들었다.

## 3. 결론

직접 여러 테스트 암을 구성하지 않고 많은 암 길이의 조합을 실험해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으나,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해본 것에 비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을수 있다는 점, 또한 측정/계산 오차들이 존재할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. 하지만 이론적으로 매우 정확한 선형함수를 구하였고, 향후 직접 서버모터 제어를 아두이노에서 구현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 결론적으로 실제 테스팅을 대체하기보단 만들어 봐야할 암의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모형의 사용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.